



“대구에서 세계육상대회를!” 대구시의회는 21일 오전 8시 중구 공평네거리에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육상경기연맹(IAAF)의 심사단 방문에 대비해 대회유치 및 환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거리 홍보활동을 펼쳤다.

/김장욱기자 gimju@